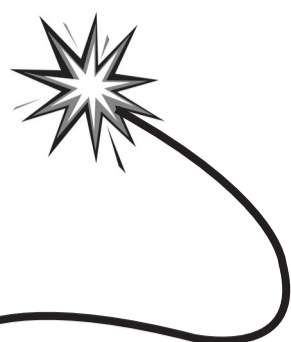


주연 'OOO 리스크' 작품들 공개 감행 vs 무기 연기



'빌런스' 광도원·'디어엠' 박혜수 음주·학폭에 공개 무기한 연기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주연에도 통편집 없이 26일 공개 감행

넷플릭스 '사냥개들' 김새론 대본 변경 후 다른 배우 투입에 후반부 산만한 전개 지적 나와



왼쪽부터 '빌런스' 출연한 광도원, '종말의 바보' 유아인, '사냥개들' 김새론.

만화가 김풍의 유일한 완결작이자 대표작 '찌질의 역사'는 3년 4개월에 걸쳐 연재됐고, 원작자인 김풍이 직접 극본을 맡아 대본 작업에 총 2년 4개월을 쏟아부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드라마는 이미 촬영을 마친 지 오래지만, 현재로서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주연을 맡은 배우 조병규에 이어 송하윤까지 학폭 의혹으로 대중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수년간 작품에 매달리며 편성일을 기다려왔던 김풍은 송하윤의 학폭 의혹이 터진 다음 날 개인 SNS에 이렇게 심경을 전했다. "미치겠다 하하하하....."

10일 방송가에 따르면 잊을 만하면 터지는 연예인들의 각종 사건·사고로 빨간불이 켜진 작품들이 늘어나면서, '주연 리스크'를 떠안게 된 작품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주연 배우의 도덕적 해이로 위기를 맞은 작품들은 배우를 교체하거나 재촬영하는 식으로 수습됐다.

SBS 드라마 '모범택시2'는 전체 촬영이 6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학폭 논란이 일었던 에이프킬 이나은 대신 배우 표예진을 투입해 전부 재촬영했고,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총 20부작 중 6회까지 방송된 상태에서 학폭 논란에 휩싸인 배우 지수 대신 나인우를 투입해 배우를 교체했다.

그러나 사전 제작이 일반화되는 요즘에는 중도 하차나 배우 교체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방송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민정서상 사회적 물의를 배우를 방송에서 통편집하는 게 맞았고, 그게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OTT뿐 아니라 방송사들도 드라마를 사전 제작하고 있다"며 "촬영을 다 마친 상황에서 주연급 배우 한 명을 아예 통편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품 공개일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리스크를 안고 공개를 감행하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라고 짚었다.

예컨대 드라마 '빌런스'는 티빙 오리지널로 지난해 중 공개 예정이었지만 주연 광도원이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공개일이 불투명해졌고, KBS 드라마 '디어엠'도 박혜수의 학폭 의혹으로 편성이 무기한 연기됐다.

다만 글로벌 시청자들을 품은 해외 OTT의 경우에는 주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과감한 선택지도 열려있는 듯하다.

넷플릭스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유아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를 오는 26일 통편집 없이 공개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작품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요한 캐릭터로서 유아인 배우가 등장한다"며 "작품의 흐름을 최대한 해치지 않기 위해 감독, 작가, 제작진 등이 모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편집과 후반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개됐던 넷플릭스 '사냥개들'도 음

주 운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새론을 어쩔 수 없이 등장시켰다.

이미 짙은 분량은 최대한 편집했고, 촬영 전인 마지막 부분 대본은 다시 써서 시청자들의 보는 불편함을 덜어냈지만, 중반부까지 중심인물이었던 차현주(김새론)가 외국으로 떠나고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조력자로 등장하면서 후반부가 다소 산만하게 전개됐다는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드라마 제작비가 수백억원대까지 이르는 요즘, 배우 한 명의 일탈이 작품 전체에 미치는 피해는 단순히 위약금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작업에 참여한 수많은 스태프, 배우, 후반 작업 업체, 대행사 등이 줄줄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전체 작품을 사장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는 시청자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가 출연한 작품을 방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OTT는 구독자들이 선택해서 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주연 리스크'가 터진 작품들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작품은 수백명 규모에 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창작물"이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사장되는 것은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제작사들은 빠름을 심정으로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선거만큼 치열했던 개표방송 1위는 MBC

3부 시청률 11.7% 최고
SBS 5.6%·KBS 5.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10일 뉴스와 개표방송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MBC였다.

11일 님스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 MBC가 방송한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3부는 시청률 11.7%로 같은 날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중 가장 높았다.

MBC의 개표방송 2부와 1부 역시 각각 11.4%, 8.2%의 시청률로 다른 방송사들의 개표

방송과 특집 뉴스보다 높았고, 4부는 6.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KBS 1TV '2024 총선특집 KBS 9시 뉴스'가 7.7%의 시청률로 MBC의 뒤를 이었으며, SBS의 '2024 국민의 선택 특집 SBS 8뉴스' 시청률은 6.2%였다. 이밖에 SBS의 개표방송 '2024 국민의 선택' 4부는 5.6%, KBS 1TV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3부는 5.3%를 각각 기록했다.

종편 채널 중에선 TV조선의 '결정 2024 특집 TV조선 뉴스9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부가 3.2%의 시청률로 선두를 달렸고, 채널A의 '특집 뉴스A'가 2.9%, '나의 선택 2024' 1부가 2.5%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한효주 "너무 좋은 대본에 가슴 뛰어"

디즈니+ '지배종' 윤자유로 변신

"드디어 이렇게 좋은 대본이 나한테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좋아서 그날 일기에 썼어요."(한효주)

한효주(사진)는 지난 8일 디즈니+의 새 오리지널 시리즈 '지배종' 제작발표회에서 "시나리오를 읽고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똑똑한 소재라고 생각했다"며 "가슴 뛰게 하는 대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즈니+에서 '무빙'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지배종'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효주는 지난해 공개된 인기를 끌었던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에 초능력자로 출연했다.

'지배종'은 가까운 미래 생명공학기업 BF가 새로운 인공배양육의 시대를 연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BF의 대표 윤자유와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경호원 우재운의 이야기를 다룬 SF 스릴러다. 윤자유의 주변에서 의문스러운 죽음과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들의 배후를 파헤치는 과정이 그려진다.

한효주는 젊은 나이에 BF를 창업해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낸 윤자유로 변신하고, 주지훈은 군인 출신 경호원인 우재운 역할을 맡았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주지훈은 "통쾌감을 느끼



실 수 있게 잘 찍었다"고 말했다.

'지배종'은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드'(2022)의 박철환 감독이 연출하고,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2017)과 시즌2(2020) 각본을 쓴 이수연 작가가 집필했다.

10부작인 '지배종'은 이달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2회씩 공개된다. /연합뉴스

보아, 도 넘은 모욕·인신공격에 대규모 고소

가수 보아가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잇따른 악성 댓글 등에 고통을 호소하며 대규모 고소라는 '말'을 빼 들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1일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해 추가로 외부 법률자문기관과도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M은 "당사는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투버)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와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아는 올해 초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출연하고 지난달 신곡 '정말, 없니?'를 발표하는 등 가수와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그를 향한 도 넘은 모욕과 비방 등이 쏟아지며 큰 고통을 겪었다. 보아의 급기야 자신의 SNS에 '저의 계약은 2025. 12. 31까지'라며 은퇴까지 암시하는 글을 올려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대연건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물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우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 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평생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뻐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찜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